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|          |  |      |     |
|----------|--|------|-----|
| 심의일자     | 2017. 07. 19. (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(GBC) 신축사업 /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|      |     |
| 의결번호     | 2017-소13-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의결과 | 재자문 |

[심의 내용] 건축계획 + 도시설계 + 조경분야 자문

■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소위원회에 재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< 건축계획분야 >

- 쉼튼 계획에 대한 심의의견 조치계획이 미흡하므로 적극 반영하기 바람.
  - 중앙광장, 업무, 전시시설 사이에 큰 규모로 계획하고 지하주차장과도 수직동선을 연계(맨해튼 라커펠러센터 사례도 참조 바람)
  - 전시시설2를 전시동으로 위치 변경하고 그 위치에 판매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중심의 Vertical Open Space 개념으로 계획
- 각 동의 입면디자인(특히, 전시/컨벤션, 공연장)이 지나치게 이질적이므로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추도록 개선하고, 포디엄 부분을 연속성 있게 디자인하기 바람.
- 입면계획에서 타워동 업무시설1의 사선구조 패널은 타 외국 도시의 사례와 유사하므로 다른 개념으로 디자인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.
  - 주변의 공연장·전시시설 등과 연계된 디자인이 되도록 검토
- 지하2층 '전시시설2'를 전시동으로 위치 이전하여 전시기능을 집적화하기 바람.
- 중앙광장의 성격 및 위계를 고려하고 진입광장과 후면광장은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.
-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견인 '차량 진출입시설을 동서 보행축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 검토'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하므로,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고 교통량 분석내용을 제시하기 바람.
- 북측 도로변의 전시/컨벤션시설-공연장의 건축선(특히 1층 부분)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 바람.
- 북측 도로변은 보행량이 많으므로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.
- 단지의 보행 접점부(북동, 북서, 남동측 코너)를 확장하여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.
- 공공보행통로의 동측 끝 부분에는 공개공지를 좀 더 크게 확대 계획하기 바람.

- 계속 -

2017. 7. 19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|          |  |      |     |
|----------|--|------|-----|
| 심의일자     | 2017. 07. 19.(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(GBC) 신축사업 /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|      |     |
| 의결번호     | 2017-소13-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의결과 | 재자문 |

[심의 내용] 건축계획 + 도시설계 + 조경분야 자문

## 〈 건축계획분야 〉(계속)

- 공연장 출입구 전면에 오픈 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.
- 보행동선별 보행량 제시안이 적절한지 재확인하고, 보행량에 따른 쉼튼 접근성을 검토하기 바람.
  -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동서간 보행동선축의 보행량도 검토
- 가로활성화 및 공공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연도형 상가에 면한 외부공간의 세심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.
- 공공보행통로 및 광장 등 외부공간의 바닥(슬래브) 레벨에 변화를 주어 입체적인 조경공간으로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.(권장)
- 광역, 중역, 미시(개별)적으로 구분된 분석, 개념, 계획이 요구되므로, 전체 및 개별 프로젝트별로 세부 계획내용을 제시하기 바람.
-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(발표)과 연계한 유연한 대응 개념의 계획대안을 검토 바람.

## 〈 조경분야 〉

- 영동대로변 공개공지는 대형목을 그리드형으로 패턴 식재하여 가로변에 충분한 녹음량을 제공하고, 지하고가 높은 교목 하부에서 자유스러운 통행과 휴게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기 바람.
- 메타세콰이어 대형목 이식은 수형 유지가 어렵고 재해에도 위험성이 있으므로,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최소량을 이식하도록 식재개념을 수정하고 전체적으로 녹음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식재계획을 고려하기 바람.
  - 업무시설 주변 잔디광장 녹지에 공공보행통로에 면하여 지하고 높은 대형목을 열식하여 초고층동의 위압감 완화 검토. 끝.

2017. 7. 19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